

하늘이 내린 큰 복

天賜
洪福

중양절에 깃든 의미 | 질병의 근원 파악하면 전염병에도 안전 | 구이저우 '장자석'에 가보셨나요?

제134기





중양절에 깃든 깊은 의미

목차

청화원화(淸畵院畵) 《십이월월령도 9월》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다' 부분도. (공공자료)

권두일문	3	중양절에 깃든 깊은 의미
길성고조(吉星高照)	4	봉쇄 기간 병난 남편이 깨닫고 스스로 구원받다
	6	손에 땀을 쥐게 한 차량 전복 사고
	8	전염병 기간, 신입사원이 좋은 성과를 내다
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	10	미국 유학생이 '9차진언'을 외워 코로나에서 회복
	14	18년 불임 여성이 마흔 넘어 어머니가 되다
세상을 이롭게 하다	18	전쟁을 겪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다
	22	유럽 35개국 파룬궁 수련생이 폴란드에 모여 진상 알러
평안을 얻는 길	24	질병의 근본 원인 파악하면 전염병에서도 안전해
	25	구이저우(貴州) '장자석'에 가보셨습니까?
아는 것이 복	28	다시는 가족 채찍을 휘두르지 않다
항간여론	30	"폭력 기계가 하루빨리 멈추기 바랍니다"

중양절은 황력(黃曆) 9월 9일로 '9'는 《역경(易經)》에서 양수(陽數)이며, '99' 2개 양수가 서로 겹쳐 '중구(重九)' 또는 '중양(重陽)'이라 합니다.

'나 혼자 타향에서 나그네 되고 보니, 명절을 맞을 때마다 가족 그리는 정 간절하네, 올해도 우리 형제들 높은 그 산 오르겠지만, 수유 꽃을 꽃을 때 한 사람 모자람을 문득 깨달으리라.' 이는 당나라 시인 왕유가 중양절에 가족을 그리며 지은 시 <9월 9일 산둥 형제를 회상하다>로, 오랫동안 칭송받았습니다.

중양절에 높은 곳에 올라 수유꽃을 머리에 꽂는 풍습은 원래 전염병을 피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남북조 시기 양요균(梁吳均)의 《계제개기(續齊諧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한시기 어느 늦가을, 도사 비장방(費長房)이 제자 환경(桓景)에게 "9월 9일 네 집에 전염병이 닥칠 것이다!"라

며 전염병을 피할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환경은 비장방이 전수해준 법을 기억해 수유꽃 향낭과 국화주를 준비했습니다. 9월 9일 이른 아침, 환경은 수유꽃 향낭을 가족의 팔에 묶게 하고 함께 산에 올라 화를 피했다가 해가 진 뒤 내려왔더니, 가족이 전부 전염병으로 죽어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중양절에 수유꽃을 꽃고 높은 산에 올라 전염병을 피하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중양절은 중국 수련문화와도 관련됩니다. 전설에는 9월 9일 화하민족 시조인 황제(黃帝)가 용을 타고 승천했고, 도교 천사(天師) 장도령도 9월 9일 승천해 신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중양일에 더 비범한 의미가 담겼습니다. 구구귀진(九九歸真), 해마다 중양절은 삶의 진정한 의미가 반본귀진(返本歸真)이고, 생명이 신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함을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봉쇄 기간 병난 남편이 깨닫고 스스로 구원받다

글/ 썩썩(紫子, 중국)



내가 잠시 묵고 있는 도시는 올해 3월 말에 코로나로 봉쇄됐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을 막아 놔고 남겨진 출입구 하나마저 누군가 지키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봉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가을부터 채소를 많이 말리고 장아찌를 좀 담가 놓았기에 잠시 먹을 걱정은 없었지만 신선한 채소는 먹을 수 없었다.

봉쇄 기간 초기에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등록하고 진단 시약통을 나눠주고 사흘이 멀다 하고 핵산 검사를 했다. 현관문 밖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겁에 질린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럴 때 중병에 걸리면 앞친 데 덮친 격이 된다.

약 50일이 넘어도 봉쇄가 풀리지 않자 남편은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심한 감기 증상이 나타났다. 온몸이 아프고 관절마다 통증이 있었으며 발열, 가슴 답답, 기침, 뒤통수 마비 등 독감과 유

사한 증상이 나타났다. 누우면 숨을 쉴 수 없어 앉은 자세로 자야 했다. 6일을 지탱하다 식욕을 잃어 눈에 띄게 수척해졌는데, 남편은 수시로 생명 위협을 느꼈다.

나는 남편에게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9자진언(九字真言)을 외우라고 알려줬다. 그는 외우고 있지만 자신이 천수를 다한 것 같다며 걸으려는 나아진 게 없다고 했다.

나는 2004년에 진정으로 파룬따파를 수련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적이 있으나 건강을 회복했다. 남편은 파룬따파가 좋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중공의 박해와 오랫동안의 당문화

(党文化) 세뇌로 형성된 관념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수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고집불통’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

이때 도시 일부가 봉쇄에서 해제됐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지금 당신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봉쇄가 해제됐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할 건가요? 아니면 파룬따파를 수련할 건가요?”

남편은 약을 먹으면 간통증이 생기므로 죽어도 병원에 안 가겠다며 스스로도 갈 길이 없다고 여겼다. 이때 수련하는 친척이 찾아와 권유했다. “기연이 닿았으니 망

설이지 말고 대법을 배우며 연공을 해 봐요.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수련한 후 무슨 병이든 다 나은 걸 알고 있으면서 뭘 기다려요?”

이때 남편은 깨달은 듯 파룬따파를 연마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대법에 자신을 맡기겠다고 했다.

연공을 시작한 첫날 남편이 말했다. “폐 부위가 한 덩어리 물질로 막혔었는데 연공할 때 쪽 피니까 막힌 게 사라졌어.” 또 열이 내려 편히 누워서 잘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갑자기 발뒤꿈치에 열이 나는 것을 느꼈는데 정맥류로 오랫동안 부어 있던 그 다리였다. 그는 종아리에서 아래로 세 번 뚫리는 힘을 느꼈다고 했다. 지난(济南) 설법[리홍썩(李洪志) 선생께서 직접 설법한 녹음 파일]을 들을 때 남편은 이틀 동안 눈물을 흘렸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처음 봤다. 남편은 사부님의 자비를 느꼈다. 몸에 병든

연공을 시작한 첫날 남편이 말했다. “폐 부위가 한 덩어리 물질로 막혔었는데 연공할 때 쪽 피니까 막힌 게 사라졌어.” 남편은 또 열이 내려 편히 누워 잘 수 있었다.

곳마다 감각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은 회복 중이라고 했다.

남편은 도시 봉쇄기간에 대법 수련에 들어서 반본귀진(返本归真)의 길을 걷게 됐으니 정말 불행 중의 다행이자 절망 속의 경사다.

손에 땀을 쥐게 한 차량 전복 사고



[중국 투고] 저는 한 대기업에서 큰 화물차를 운전하다 보니 자주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합니다. 월급은 많지만 일이 매우 힘들고 위험합니다.

2020년 6월 어느 날, 저는 석재를 가득 실은 긴 트럭을 운전해 허베이성에 가야 했습니다. 가는 길은 왼쪽은 산과 잇닿고 오른쪽은 깊은 골짜기였는데 또 오르막길이라 매우 위험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트럭 앞부분과 차체 연결부위에서 ‘콿!’하는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잇따라 트럭이 옆으로 크게 뒤집히더니 ‘꽁!’ 소리와 함께 골짜기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는 맥다기를 기다리는 닭처럼 눈을 질끈 감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인기척이 없어 눈을 떠보니 저는 아직 트럭 안에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네?! 어떻게 된 거지?’

가까스로 트럭에서 나왔는데 눈앞의

장면을 본 저는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거대한 트럭 적재함이 거꾸로 박혔지만, 운전석이 있는 차량 앞부분은 굴러떨어진 적재함에 따라 골짜기로 끌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골짜기 가장자리에 누워있었습니다. 만약 차량 앞부분이 적재함을 따라 처박혔다면 제 목숨도 이미 끝장났을 겁니다.

이 차량 전복 사건은 너무 기이하고 불가사의했습니다! 당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낮이 나간 저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큰소리로 말씀하셨습

니다. “아들아, 어서 대법 사부님께 옆드려 절을 올리거라, 사부님께서 네 목숨을 구해주셨다!”

어머니가 파룬궁을 수련하시기에 저는 연공 후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온몸의 병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좋아졌고 성격이 낙천적이고 유쾌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고 일찌감치 삼퇴(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서 탈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를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법제자가 말하는 파룬궁의 그런 신기한 일들은 반신반의했고 심지어 믿지 않고 여러 번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항상 대법 호신부(护身符)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번 차량 전복 사고는 예사롭지 않았으나 대법 호신부가 보호해줬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제 마음은 움찔했고 아무것도 믿지 않던 저는 꿈에서 깨어난 듯했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돈밖에 모르던 제 영혼을 씻어줍니다. 그 무엇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저는 생명 깊은 곳에서 종래로 느껴본 적 없는 대법에 대한 경외심이 솟아났습니다!

생명을 구해주신 파룬따파와 리홍쑤(李洪志)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福

전염병 기간, 신입사원이 좋은 성과를 내다

글/ 구샹(古乡, 중국)



많은 동료들을 이해할 수 없게 한 일이 있다.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샤오위(小羽)는 업무 수준과 경험이 모두 부족한데 어떻게 짧은 시간에 회사를 위해 잇달아 큰 주문을 받아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을까? 그때마다 샤오위는 동료 류 씨와 서로 마주 보고 웃었다. 이것은 그들 사이의 비밀이다!

우한폐렴이 발생한 이후 경제가 계속 불황이고 샤오위가 다니는 회사도 재앙을 피할 수 없어 이윤이 좋지 않았다. 어떤 동료들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게 되자 다른 출로를 찾았다. 그의 친한 동료도 사직했다. 매달 주택 대출금과 자동차 대출금을 내야 하는 샤오위도 큰 압력에 시달렸다.

동료 류 씨는 샤오위와 업무상 일을 자주 교류했다. 샤오위는 류 씨에게서 다른 동료들과 다른 점을 보았다. 류 씨

는 개인의 이익을 담담하게 보았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쌀과 밀가루, 기름이나 생활용품을 무료로 주었다. 동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 묶이나 심지어 몇 묶을 더 받으려 했다.

그러나 류 씨는 더 많이 가져가기는 커녕 자기 묶도 받지 않았다. 나름대로의 도리가 있다고 생각한 샤오위는 류 씨의 행위를 지켜보고 감동했다.

샤오위는 류 씨와 단둘이 있을 때 어찌 된 일인지 알아봤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류 씨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류 씨는 파룬궁을 연마한 후 자신의 심신이 크게 변했고 진선인(真·善·忍) 신앙을 견지하다 박해를 받아 고정 직업을 잃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샤오위는 깊은 동정을 표함과 동시에 좋은 사람들이 박해받는 것에 분개

했다.

공능에 대해 조금 알고 있던 샤오위는 류 씨와 항상 그를 곤혹스럽게 했던 많은 현상에 대해 토론했고, 류 씨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해석해줘 샤오위는 마음이 확 트였다. 류 씨가 샤오위에게 이것들은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에 깨달은 것이라고 말했다. 샤오위는 마침내 자신이 줄곧 찾던 것을 찾았다고 느꼈다.

류 씨는 샤오위에게

《전법륜(转法轮)》한 권을 선물하며 모든 답이 그 안에 있다고 알려줬다. 샤오위는 보물을 얻은 듯 류 씨에게 책을 읽기 전에 향을 올려야 하는지 물었다. 류 씨는 그렇게 많은 규칙이 없으니 책을 보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으면 된다고 말했다. 샤오위는 집에 돌아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전법륜》을 읽었다.

이튿날, 샤오위는 감격에 겨워 류 씨 귓전에 말했다. “이건 정말 기이한 책입니다!” 샤오위는 《전법륜》에서 많은 이치를 터득했고, 혼탁한 세상의 거센 흐름에서 오직 진선인을 따라야 양심을 지킬 수 있고, 하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샤오위는 매일 즐겁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착실히 하면서 크고 작은 모든 주문과 모든 고객을 참담게 대했다.

회사의 수익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샤오위는 《전법륜(转法轮)》에서 많은 이치를 터득했고, 혼탁한 세상의 거센 흐름에서 오직 진선인을 따라야 양심을 지킬 수 있고 하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다.

때 샤오위는 큰 계약을 따내 회사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었다. 보름도 되지 않아 또 더 큰 회사가 샤오위를 찾아와서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샤오위는 류 씨에게 파룬따파의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며 감탄했다!

미국 유학생이 '9자진언'을 외워 코로나에서 회복

2021년 4~5월, 미국 오하이오주 한 대학교의 중국 유학생 낸시는 친구들과 그레이트 스모키 국립공원에 놀러 갔다. 이틀 전부터 미열이 있었으나 작은 감기일 것이라 여겨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당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때이다.

당일 친구의 SUV 차량으로 이동했으며 5명이 함께 승차했다. 낸시는 몸이 불편해 뒷좌석에 누워 혼미한 상태에서 자면서 스모키 공원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릴 때 쓰러지다

첫날 친구들이 놀러 나갔으나 낸시는 혼자 산장에서 잤다. 두 번째 날 친구가 “안 돼, 계속 누워있을 수 없어, 오늘 우리랑 함께 나가자, 이곳 풍경을 보면 너도 나올 수도 있어”라고 말했다.

사실 낸시는 3일 동안 발열 상태였고 병세가 매우 심했다. 그녀가 회상했다. “몸이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를 반복

했어요. 식사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낸시와 친구들은 그녀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친구의 권유로 낸시는 일어나 문을 나섰다. 그러나 승차 5분 뒤 낸시는 토할 것 같았고 기사가 차를 멈추고 문을 열었다. 낸시는 차에서 내리며 쓰러졌다.

“쓰러질 때 저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가락에서 경련이 일어

위 사진: 미국 그레이트 스모키 국립공원.
오른쪽 사진: 낸시의 평상시 모습.



큰 난에 봉착했을 때 읊어주세요

法輪大法好 파룬따파 하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真善忍好 찌싼런 하오
-진선인은 좋습니다



나 닭발처럼 펴 수가 없었어요.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경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온몸이 마비된 느낌이 들었고 호흡이 딸렸습니다.”

잔디밭에 누운 낸시는 ‘극한에 이르렀다는 직감이 들었고 이 생명이 곧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 없어’라고 다짐했다.

9자진언을 읊고 수일 내로 회복

위험에 처한 낸시는 그때 파룬궁이 기억났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수련했으나 2020년 룸메이트(같은 숙

소 친구)와 모순이 발생했을 때 파룬궁 진선인(真·善·忍) 요구에 따라 마음을 닦지 않아 모순이 법정에서 해결할 지경이 됐다.

그 기간 낸시는 수련에서 떨어졌고 자신을 대법 수련인으로 여기지 못했다. 나중에 다시 파룬궁 책을 보기는 했으나 꾸준하지 못했고 수련을 하는 등 하는 상태에 있었다.

생명이 경각에 다다랐을 때 낸시의 머릿속에 일념이 나타났다. “9자진언을 읊어야지, 사부님 저를 구해주세요!”

친구가 그녀를 산장에 데려갔다. “저는 침대에 누워 끊임없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9자진언을 읊었고 그러다 잠들었어요.”

하룻밤 만에 낸시는 다시 살아난 느낌을 받았다. “이튿날 몸에서 땀이 나고 열도 내렸어요. 괜찮아졌지요.”

“저는 일어나 밥을 먹을 수 있었으나 맛은 느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시 2~3일이 지나자 미각도 되살아났다.

낸시는 이 생사의 과정을 회상하며 말했다. “하룻밤 만에 나아질 줄 생각도 못했어요. 열도 내리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어요. 잔디밭에 눕는 순간에 생명이 끝자락에 이르렀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죠. 저는 대법과 사부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정

말로 그 어떤 언어로도 사부님에 대한 존경과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2개월 뒤 혈액검사에서 항체 발견돼

건강을 회복한 낸시는 2개월 뒤 친구의 권유를 받았다. “검사하러 가지 않을래? 네가 만약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혈액 속에 항체가 있을 거야.”

낸시는 검사하러 갔다. 결과 혈액 속에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있었다. 이는 낸시가 2개월 전 확실히 감염됐다는 것을 설명한다.

낸시와 같은 사례에 대해 유럽에 거주하는 중국계 바이러스 전문가 동위홍 박사는 이렇게 밝혔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으나 체내에 항체가 생겼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항체가 생기려면 바이러스 성분이 체내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자연 감염 후 항체가 생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체내에 항체가 생긴 것이 발견돼 확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9자진언을 성심껏 읊은 사례 연구보고

동위홍 박사는 전염병 발생 초기에 36건의 우한폐렴 환자의 보도를 수집



동위홍 박사


했다. 그들은 파룬궁의 ‘9자진언(九字真言)’을 성심으로 읊어 병세가 완화되거나 건강을 회복한 사례였다. 동위홍 박사는 의학 분석을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6건의 환자에게서 증상이 개선된 효과는 100%에 달했다. 그중 26건(72%)은 증상이 완전히 회복됐고, 10건(28%)은 증상이 개선됐다. 11건의 중증환자에서 10건은 증상이 완전히 회복됐고 1건은 개선됐다. ICU(중증환자 병실)에 입원할 정도의 중증환자 3명 중 2명은 완전히 회복됐고 1명은 개선됐다.

보고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 “세계 6개 나라, 6개 민족의 36건 우한폐렴 감염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서와 의학연구 분석에 따르면, 우한폐렴 감염환자가 성심으로 ‘9자진언’을 읊으면 병세가 뚜렷하고도

쾌속으로 개선되는 임상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자진언’이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원리에 대해 동위홍 박사는 이렇게 해석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불가(佛家) 고덕대법(高德大法)이고 진선인(真·善·忍)은 우주 특성입니다. 사람들이 성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읊을 때 우주의 강대한 바른 에너지가 읊은 자의 세포 내로 관통되면서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지 제24쪽 ‘질병의 근본 원인 파악하면 전염병에서도 안전하다’라는 글에서 화타가 양탕의 병을 치료한 것과, 《황제내경》에서 ‘정기가 몸 안에 있으면 샅된 것이 침범할 수 없다(正氣存內 邪不可干)’와 같은 이치다. 



왕치진(王琦君) 씨가 자신이 겪은 신기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18년 불임 여성이 마흔 넘어 어머니가 되다

왕치진(王琦君)은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갔다. 남편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그녀는 임신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18년간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왕치진 부부는 아기를 낳기 위해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부부는 우선 민간요법을 시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

다.

그래서 서양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검사 후 왕치진은 나팔관 중 하나가 막혀 있기에 다른 사람보다 임신율이 절반이나 적다고 했다. 동시에 남편의 정자 수도 낮은 편이라 의사는 인공 수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몇 번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자 그들은 실망하고 낙담했

다.

그러다가 얼마 후 용기를 내 시험관 아기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20년 전만 해도 시험관 아기 수술은 거의 1만 달러(약 7만 위안)에 달했지만 그들은 그래도 하기로 결정했다.

시험관 아기 시도도 실패, 기진맥진해 좌절

그때 그들은 외진 대학가에 살았고 시험관 아기 의사를 만나기 위해 3시간을 운전해야 했다. 게다가 의사는 당시 시험관 아기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줬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를 갖기를 원하기에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왕치진은 시험관 아기 과정은 사실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매우 길며 여러 단계로 나뉜다고 했다.

신탕런(新唐人) TV 인터뷰에서 왕치진은 이 과정을 회상했다.

“첫 번째 단계는 채란기였습니다. 여자는 보통 한 달에 한 개의 난자를 배란하는데 의사는 제게서 한 달 안에 열 개를 채집할 수 있도록 약을 처방했어요. 남편은 훈련을 받은 후 매일 제 배에 난자 생성 촉진 주사를 한 대 놓았어요. 한 달 후 그들은

제 몸에서 10개의 난자를 성공적으로 꺼내 배양 접시에 넣고 수정했는데 6개만 수정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정란을 자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의사가 처음으로 세 개의 수정란을 이식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반신 마취를 해야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후 당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 마치 임신한 줄 알고 매일 조심하며 걷고 무거운 물건을 들 엄두를 못 냈지만, 3주 후 여전히 생리가 왔어요.”

“몇 달을 기다려 기분이 회복되자 의사가 나머지 세 개의 수정란을 다시 제 난소로 옮기려 했어요. 우리는 또 3시간 넘게 운전하며 마지막 희망을 품고 병원에 갔었지만 역시 실패했어요. 그때 우리는 기진맥진했고 슬픔과 절망으로 좌절했어요.”

파룬궁을 연마하고 반년 만에 임신

나중에는 출산도 자연분만으로 아주 순조로웠어요. 저는 정말 기뻐요. 대법은 저에게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을 가져다 주었어요. 파룬궁은 정말 신기해요!

여러 해가 지난 후, 왕치진은 우연히 파룬궁 수련서 《전법륜(转法轮)》을 얻었다. 왕 씨는 이 책을 보는 과정에서 파룬따파(法轮大法) ‘진선인(真·善·忍)’의 법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I was very happy. I felt that Dafa gave peace to my heart,
 那心裡頭真是很開心 我是覺得是大法帶給我 心靈的平靜

어머니가 된 왕치전 씨,



In my heart, the times I felt grateful to Dafa were countless.
 心裡頭那時候對大法的感激 真是訴說不盡

왕 씨의 아들 보언(博恩).


예전에 왕치전은 요통이 있었는데 파룬궁을 연마한 지 몇 달 만에 허리가 아프지 않았고 마음이 비교적 평온해졌다. 임신에 대한 괴로움도 서서히 내려왔다.

그런데 왕치전은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뜻밖에 임신을 하게 됐다! 그녀와 남편은 뿔 듯이 기뻐하며 아이가 태어날 날을 고대했다.

“그때 저는 마흔 살 고령의 산모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마흔이면 임신조차 쉽지 않는데 임신을 했더라도 임신 내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파룬따파를 수련했기에 임신 내내 순

조로웠어요.” 왕치전이 말했다.

“검사 결과 제 모든 지수가 20대 젊은 여성처럼 정상이었고 태아도 매우 건강했어요. 나중에는 출산도 자연분만으로 아주 순조로웠어요. 저는 정말 기뻐요. 대법은 저에게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을 가져다주었어요. 파룬궁은 정말 신기해요!”

이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보언(博恩)이고, 건강하고 다재다능하다. 왕치전은 마흔에 어머니가 된 경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감격에 겨워하며 대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絶处逢生)》

인생에서 건강은 매우 소중하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질병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 《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 이 책에서 우리는 온갖 고질병이나 불치병 환자들의 처절한 사연을 읽을 수 있다. 다행히 이들은 다양한 인연으로 파룬궁을 수련해 절체절명에서 살아나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 이 책은 명혜망(明慧网)에서 80여 개의 실화를 모아 편찬했다. 책에는 ‘괴질에 걸린 미국 퍼듀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 살아나다’, ‘백혈병 환자 14명 중 나만 대법을 수련해 살아나다’, ‘대퇴골두 괴사와 유방암이 대법으로 낫다’, ‘스웨덴 폐암 환자가 파룬궁으로 기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다’ 등이 게재됐다. 병마에 시달리는 친구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고 삶에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책은(서책과 전자책이 있음) 천제서점(天梯书店, tiantibooks.org)에서 판매한다. 중국 독자들은 인터넷 봉쇄(방법은 뒤표지 참조)를 넘어 명혜망(minghui.org)에 접속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키이우 시민들에게 진상자료와 작은 연꽃을 나눠주는 바룬티나(왼쪽).



파룬궁 수련생들이 키이우 시내 중심가에서 파룬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전쟁을 겪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는 맹렬한 폭격을 받았다. 특히 2022년 2월 ~3월 키이우에서 거의 날마다 우르릉 거리는 포화 소리가 들렸고 집을 나서면 타는 냄새가 났다.

어려운 시기에 타인을 걱정하다

파룬궁을 수련한 지 20여 년이 되는 스베틀라나(Svetlana, 오른쪽 사진)는 키이우에 남아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

는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그녀는 파룬궁을 수련한 후 신체가 건강해졌고 기꺼이 남을 돕게 됐다고 말했다.



바룬티나(Waruntina, 왼쪽 사진에서 작은 연꽃을 들고 있는 사람)도 여태껏 키이우에 남았으며 수많은 일을 겪었다. 그녀는 말했다. “폭격이 시작된 후 저는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파룬궁 진상자료를 많이 배포해 더 많은 세인에게 대법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람들이 대법진상을 알면 저처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게 될 거라는 소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진상자료를 나눠줬습니다. 그때 머리 위에서 끊임없이 폭격 소리가 났고 군사 공격이 우리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

하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 저는 더 평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연꽃과 파룬따파 진상자료를 기꺼이 받았고 크나큰 기쁨과 미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토록 힘든 시기에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전쟁 속에서 대법의 보호에 감사를 표하다

바룬티나는 그동안 방공호로 피신하지 않고 줄곧 자기 집에서 잠을 잤다. “어느 날 저녁, 강한 폭발 충격으로 아파트 전체가 흔들리자 이웃들은 허겁지겁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저

는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고 다른 공간에 있는 듯 편히 잤습니다. 이처럼 폭발 충격을 무사히 넘긴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녀는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셨다고 굳게 믿었다.

현지의 한 파룬궁 수련생은 그녀가 본 다른 공간의 모습을 알려줬다. 대법제자의 집은 빛을 뿜고

있었고 집 상공에는 사부님 법신께서 지켜주고 계셨다. 순항미사일이 그 집을 지나갈 때 사부님 법신이 그들을 지켜주신 모습도 보았다. 얘기를 듣고 나서 바룬티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타티아나(Tatyana, 오른쪽 사진 하늘색 의상)는 키이우시 외곽에 살고 있으며 포탄이 터진 후 생기는 충격파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체험했다. 그녀는 파룬따파가 지극히 힘든 시기를 넘을 수 있게 그들을 도와줬다고 말했다.

전쟁 기간에 키이우 사람들은 방공호에 들어가 피난하거나 전쟁지역을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타티아나와 그녀 남편은 날마다 집 마당에서 연공했고 대법 수련은 그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끊임없이 변하는 어려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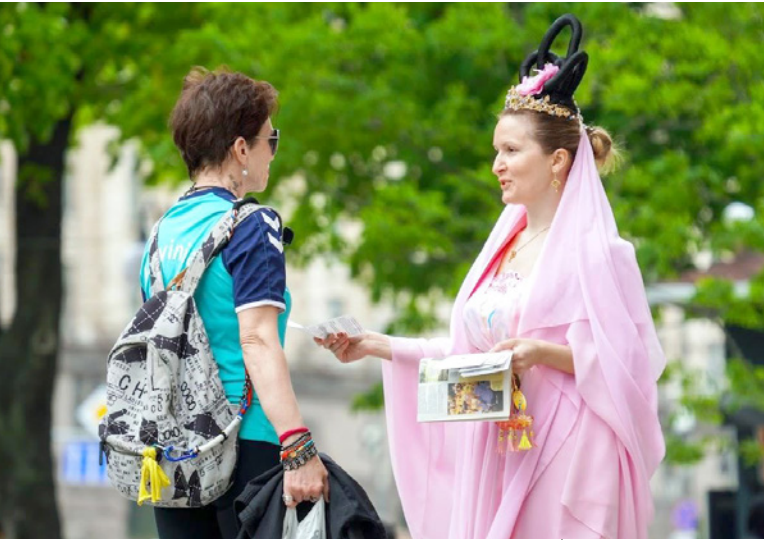
가부좌를 하고 있는 타티아나(하늘색 의상).

국에서도 그들은 ‘진선인(眞·善·忍)’ 신앙을 견지했고 좋은 심리상태를 유지하면서 기회를 찾아 세인에게 대법을 널리 전하고 진상을 알렸다.

다른 키이우 파룬궁 수련생 조라나(Zoriana)는 말했다(오른쪽 사진 분홍색 의상). “파룬따파는 제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제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줬는데 이것은 빛이고 저에게 힘과 기쁨, 건강을 주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전쟁지역 사람들이 파룬궁을 배워 평안을 찾다

전쟁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파룬궁 수련생들은 여전히 야외에서 단체로 연



세인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조라나(분홍색 의상).

공하고 진상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알렸고 단체 연공할 때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은 인연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나탈리아는 전쟁이 치열한 마리오폴(Marioepol)시에서 왔다. 그녀는 파룬궁 수련생들에게서 제4장 공법을 배우



키이우 군인이 서명으로 파룬궁을 지지했다.

고 함께 연마했다. 연공은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고 고요하게 만들어줬다. 이틀 날 나탈리아는 또 키이우 파룬궁 연공장에서 계속해 연공을 배웠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파룬궁 수련생처럼 평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학생 빅토리아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단체 연공하는 모

습을 지켜봤고 파룬궁 제5장 공법 정공(靜功)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파룬궁 수련생과 얘기를 나누니 마치 자신이 가부좌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한 병사도 파룬궁 수련생의 단체연공 장면에서 이끌렸다. 이 젊은이는 키이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어떻게 하면 파룬따파를 배울 수 있는지 문의했고 파룬궁 수련생은 즉시 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줬다.

전쟁이 계속되고 환경이 변해도 키이우 수련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연공하고 법공부와 마음 닦기를 견지하며, 진선인에 동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내면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이런 평화를 주위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다.



2022년 9월 10일, 유럽 35개국에서 모인 약 1천 명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진선인(真·善·忍)'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중공의 파룬궁 박해와 생체 장기적출 범죄를 폭로했다. 이들은 또 4억 명의 중국인이 중국 공산당, 공청단, 수선대에서 탈퇴한 것을 축하했다.

질병의 근본 원인 파악하면 전염병에서도 안전해

중국 삼국시대 양탕(楊宕)은 조조의 신하로 군수품을 담당했다. 하지만 그는 군수품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곤 했다. 조조의 신하였던 숙부 양수(楊修)가 교만과 불복종으로 처형되자 양탕은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는 군량미 수송을 틈타 또 크게 한 몫 챙길 계획을 세워놓고 노령을 핑계로 사직한 후 귀향하려 했다.

어느 날 양탕은 가슴이 팽창하고 큰 돌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으며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았다. 양탕은 ‘신의(神醫) 화타(華佗)에게 병을 보였고 화타는 양탕에게 처방전 두 장을 써줬다.

첫 번째 처방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오(二烏), 과로황(過路黃), 향부자(香附子), 연교(連翹), 왕불류행(王不留行), 법하(法夏), 필발(畢拔), 주사(硃砂).” 고문 문법을 잘 알았던 양탕은 그 8가지 약재의 첫 글자를 연결해 읽어보고 깜짝 놀랐다. 그



화타(華佗)상

것은 ‘이과향련, 왕법필주[二過香(相)連, 王法畢朱(必誅)]. 즉, 잘못을 반복하면 국법으로 반드시 처벌받는다’였다. 양탕은 즉시 한몫 챙기겠다는 사된 욕망을 단념하자 가슴이 상당히 편해졌다.

이어서 두 번째 처방전을 꺼내 읽다가 갑자기 “악!” 소리를 지르고 피를 토하며 혼절했다.


처방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상산(常山), 유향(乳香), 관계(官桂), 목향(木香), 익모초(益母草), 부괴(附塊).” 이 여섯 가지 약재의 첫 글자를 이으면 ‘상유관목익부[常(賞)乳(汝)官(棺)木益(一)附(副)]. 즉, 너에게 관을 짜는

나무 한 벌을 상으로 주겠다’였다. 한참 후 양탕은 가족들의 곡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눈을 뜬 후 가슴이 편하고 몸이 상쾌해진 것을 느꼈다.

화타는 양탕을 다시 찾아가 말했다. “당신의 가슴이 팽창한 것은 뱃속에 어혈이 쌓였기 때문인데 넘치는 탐욕이 응집돼 생긴 것이오. 지

금은 그런 나쁜 기가 땀과 함께 배출되고 어혈을 토해내 악질은 이미 제거됐으니 다시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오.” 그때부터 양탕은 양심을 지키고 다시는 군수품을 빼돌리지 않았다.

신의(神醫) 화타는 후세 사람들에게 ‘외과 원조’로 불리나 사실상 병치료에서 근본 원인을 찾아 고쳤고 진정한 신의는 마음을 고치는 것이었다. 양탕은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고 또 조사당할까 두려워 마음이 혼란했는데 그것이 병의 근본 원인이었다. 화타는 처방전으로 훈계했고 양탕은 재물을 탐하면 생명을 잃을 것을 알고 사된 탐욕을 단념해 병이 나았던 것이다. 때문에 옛 사람은 양생(養生)은 덕(德)을 쌓는 것이라 여겼고 덕을 쌓으려면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전염병이 아직 유행하면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동서양 전통문화에서 전염병은 사람 마음의 타락으로 조성된 것이며 인류에 대한 하늘의 징벌로 여겨왔다. 그렇다면 바이러스의 침범을 당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사람 마음이 선량함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황제내경》에서 말하는 ‘정기가 몸 안에 있으면 사된 것이 침범할 수 없다(正氣存內 邪不可干)’와 같은 이치이다. 한편, 사회의 바른 기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 전염병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구이저우 ‘장자석’에 〈貴州〉 가보셨습니까?

글/ 위밍(字明)

구이저우성 핑탕(平塘)현에서 억년 된 장자석(藏字石)에서 모든 중국인의 운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섯 글자가 발견됐다. 기회가 된다면 이 여섯 글자를 꼭 가서 보기 바란다. 직접 가 볼 기회가 없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보라고 하는 것도 좋다. 중국의 한 정법위원회 서기는 직접 핑탕현에서 장자석을 보고 돌아온 후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에게 탈당하겠다고 말했다.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으므로 하늘에 순응하는 것만이 평안의 길이다.

■ 전문가들이 고찰하고 내린 동일한 결론

2004년 8월 2일 CCTV의 ‘과학을 말하다’ 프로그램에서 구이저우성 핑탕현의 글자가 있는 돌을 보도했다. 길이 7m, 높이 3m의 이 거대한 바위에는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產黨亡)’이라는 여섯 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있는데, 그중 국(國)·산(産)은 변체자, 당(黨)은



(위) 장자석의 실제 모습.
(왼쪽) 장자석 관광지 입장권에 '中國共產黨亡(중국공산당은 망한다)' 여섯 글자를 찍은 사진이 실려 있다.

간체자였고, '망(亡)'자가 특별히 컸다.

장자석 상의 글자는 매우 중요하기에 2003년 중공은 세 차례에 걸쳐 정부에서 전문가 팀을 현장에 파견해 진위 여부를 조사했다. 그중 중국과학원 조사단은 중국의 저명한 지질학자, 지구화학자, 고생물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세 팀의 전문가들은 장자석에 있는 글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2억7천만 년 전 페름기 지하층 회색 암석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공 조각이나 다른 인위적인 가공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세계적인 기이한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검증을 거쳐 이 장자석이 500년 전 란마허(拦马河) 계곡 절벽에서 땅에 떨어지며 돌로 갈라진 후, 구이저우성 첸난(黔南)주 핑탕현 장부향 타오포(桃坡)촌에 조용히 누워있게 됐다고 말했다.

■ 관영매체, '망'자 언급 안해

중국과학원 전문가팀이 구이저우성 핑탕현을 시찰하러 갔을 때, 당시 20개 이상의 중국 관영 언론 기자들이 전문가팀을 뒤따르며 취재 보도를 했다.

'별거숭이 임금님'에서 옷을 입지 않은 왕에 대해 감히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중국 언론도 장자석의 여섯 글자 중 감히 그 큰 '망'자를 말하지 못하고 모두 일치하게 앞 다섯 글자만 보도했다. 직접 본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으로 알았다.

■ 장자석의 신비와 하늘의 뜻

모두가 알다시피 간체자 한자는 중국 공산당 이후에 생긴 것으로 50년밖에 안 된다. 5백 년 전에는 '黨(당)' 자가 없고 '黨(당)' 자만 있었다. 그래서 '黨'자는 중공만 가리키지 다른 당(黨)을 가리키지 않는다. 또 5백 년 전에 '黨'

자를 알고 사용했다는 것은 신의 한 수이며 하늘의 뜻을 말해준다.

'國(국)'과 '產(산)' 두 글자가 '정통'적인 기존 변체자로 쓰인 것은 '뿌리가 있어 망하지 않음'을 뜻하며, '망당(亡黨)'이 임박함은 '당이 망하지' '나라가 망함(亡國)'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공'은 '중국'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자석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여섯 글자에는 신기하게도 변체자와 간체자가 섞여 있는데 이런 신비함은 이렇게 하늘의 뜻이라 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있다.

■ 역사적 대조:

'시황제 사후, 제국은 분열될 것'

이 구이저우의 장자석뿐만 아니라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천지간의 그 기이한 현상들이 암암리에 하늘의 뜻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된다. '사기·진시황본기'에 따르면 기원전 211년 진나라 동군에 유성이 떨어졌는데 운석 위에는 '시황제사이지분(始皇帝死而地分-시황제가 죽은 후 제국은 분열될 것이다)'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진시황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즉시 어사를 동군으로 보내 집집마다 조사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듬해 진시황이 죽자 곧 진나라는 뿔뿔이 흩어졌다. 이것은 마치 중국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뜻은 거역하기 어렵다는 뜻

이다!

■ 오늘의 대사, 4억 명이 삼퇴로 평안을 지키다

"천관지도하고, 집천지행이면, 진의라(观天之道, 执天之行, 尽矣). 이것은 중화민족의 첫 글인 '황제음부경(黄帝阴符经)'의 첫머리로서 하늘의 뜻을 관찰하고 그 뜻에 따라 행해야 하며 모든 이치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이다.

중국 역사는 수십 개 왕조가 바뀌었고 이제 '중국공산당은 망한다(中國共產黨亡)'는 하늘의 뜻이 장자석에 의해 드러났다. 그러나 중공은 공허한 명사가 아니라 억만 명의 공산당원, 공청단원, 소선대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산당의 무신론에 세뇌당해 사람들은 중공 조직에 가입할 때 모두 중공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이렇게 많은 중국인이 무의식중에 자신의 운명을 중공과 묶어 중공의 일원이 됐다. 중공이 멸망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 공산당원, 공청단원, 소선대원들이 탈퇴를 선언하지 않으면 중공의 순장품이 된다.

진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모두 행동으로 독한 맹세를 폐기하고 있다. '삼퇴'의 물결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으며, 매일 약 5만 명이 탈당 사이트에서 삼퇴를 선언하고 중국공산당과 선을 긋고 자신을 구원하는 밝은 미래를 선택하고 있다.

다시는 가족 채찍을 휘두르지 않다

글/ 산수(山水, 중국)

이것은 중공이 파룬궁(法輪功)을 가장 혹독하게 박해하던 시기에 벌어진 실화다. 2002년 4월, 파룬궁 수련생 몇 명이 중공 인원에게 납치되어 공안국의 한 지하 통로에 불법적으로 수감됐다.

통로 안 어두운 등불이 중공 타수들의 흉악한 얼굴을 비쳤다. 중공이 구축과 직장을 연좌하는 박해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일부 파룬궁 수련생들은 이름 등록을 거부했다.

한 악당이 허리춤에서 넓은 가죽띠를 뽑아 벽 옆에 앉아 있는 젊은 파룬궁 수련생을 온 힘을 다해 때렸다. 그때 한 아주머니 수련생이 달려가 젊은이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 허리띠가 빗발치듯 아주머니의 팔과 머리를 때렸다. 악당은 후려갈기며 소리쳤다. “저리가! 그가 너와 무슨 관계냐?”

아주머니는 엄숙한 표정으로 “내 동생이에요, 가죽 띠를 내려놓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라고 제지했다. 악당은

여전히 손에 들고 있는 가죽띠를 흔들었다. 그때 통로 끝, 그 밝은 곳에서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그는 “아빠”라고 외치며 바지 주머니에서 간식을 더듬어 입에 넣으며 흐뭇하게 씹고 있었다.

가죽띠를 휘두르던 사람이 손을 멈추고 간식을 먹는 아들을 바라보더니 험상궂은 얼굴에 미소가 돌았다. 그는 아들의 한마디에 또 품을 잡으며 손에 진 넓은 가죽띠를 휘두르려 했다.

그때 아주머니는 수련생을 감싸고 있던 팔을 놓고 천천히 일어나 통로 끝에 있는 육철 세 되는 어린이를 바라보았다. 어린이는 여전히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 먹고 있었는데 눈앞의 잔혹한 광경에 의외로 태연했다.

아주머니는 확고한 말투로 타수에게 “아이를 데려가요!”라고 말했다. 깜짝 놀란 타수는 “걱정 마, 내 아이는 풍부한 경력을 갖고 있어. 이런 광경에 놀라지 않아”라고 우쭐거렸다.



그 순간 아주머니는 마음속으로 이 부자를 위해 비애를 느꼈다! 그녀는 다시 명확한 어조로 말했다. “아이를 데려가요! 어느 날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이 오늘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사람들을 잔인하고 추호의 인간성도 없이 가죽띠로 때렸다는 사실을 아들이 알았을 때, 그는 당신을 미워할 겁니다. 자식 앞에서 당신은 아버지로서의 존엄을 잃게 될 겁니다!”

타수는 멍하니 거기에 있었는데 이때 지하도 안은 고요하고 적막했으며 그의 동료 패거리들도 어리벙벙하게 그를 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두 손으로 천천히 가죽


띠를 펴고는 허리에 댔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몇 걸음 걷다가 그는 멈춰 서서 아들에게 “이모님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드려”라고 말했다.

아이는 돌아서서 작은 손을 치켜들며 “이모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옛된 목소리로 외쳤다. 통로 안 모든 사람이 조용히 그들을 배웅했다.

부자가 복도 끝에 다다르려 할 때 방금 허리띠를 내려놓은 젊은 아빠는 오른손을 흔들며 파룬궁 수련생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데리고 지하도 입구의 그 밝은 곳으로 나갔다.

나중에 사람들에게서 그가 유명한 ‘타수’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이후로 동료들은 그가 가죽 채찍을 휘두르는 결본 적이 없다고 한다.

아무리 악랄한 타수라도 인간성에는 아들에 대한 자애가 있다. 파룬궁 수련생은 순수한 선으로 타수의 양심을 일깨웠다. 아직도 중공에 세뇌돼 악행을 일삼는 사람에 비하면 그는 행운이다.

어느 부모도 아들이 타수가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고, 어느 아내도 남편이 잔인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어느 아이도 아버지가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악당이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선한 씨앗이 묻혀 있으므로 그 선함을 지킬 수 있다면 이 생명은 희망이 있다. 

“폭력 기계가 하루빨리 멈추기 바랍니다”

글/ 위밍(宇明)

2022년
9월 28일까지
중공 3대 조직인
공산당, 공청단원, 소선대에서
탈퇴를 성명한 중국인 수가
4억 262만 명을
넘어섰다.



많은 도시에서 극단적인 도시 봉쇄 ‘잘못된 조치[錯施]’로 초래된 2차 재앙은 바이러스 재앙보다 훨씬 컸다. 강압적인 정책에서 각별히 시달려왔던 일부 민중은 중공의 본질을 간파하고 해외 탈당 사이트에 ‘삼퇴(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를 성명했다.

공산당을 옹호하던 산둥(山東)의 사오핀홍(小粉紅) 추진원(初俊文)은 “저는 불행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공산당의 강제격리로 극악무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 문은 용접으로 봉해졌고 일상생활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라고 성명에서 말했다.

“저는 그들에게 무릎 꿇고 빌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무단결근 처리되어 직장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매국노, 유언비어 유포자라고 욕했으나 이 며칠간 일을 통해 그들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격리 기간에 인터넷 봉쇄 돌파 프로그램을 통해 공산당의 사악함과 자신이 줄곧 악마의 편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지몽매함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저는 중국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등 일체 조직에서 탈퇴할 것을 성명합니다. 더 많은 중국인이 중공의 진면모를 똑똑히 보기를 바라며, 이 폭력적인 기계가 하루빨리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망해야 희망이 있다

상하이 푸둥신(浦東新)구의 왕리핑(王麗平)과 린리(林莉), 웨이쥙(偉宗)은 탈당을 성명했다. 그들은 “상하이

의 방역으로 우리는 당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1개월 넘게 갇혀있는 동안 배추, 토마토, 당근을 몇 개씩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선물 꾸러미’에 대해 500위안(약 10만원)이나 받아 갔습니다!”라고 했다.

그들 중 한 명은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낸 후 한 시간도 안 되어 계좌가 동결됐다. “더 역겨운 것은 우리가 TV를 틀기만 하면 뉴스에서는 가무가 난무하고, 계속 물질이 풍족하고 서민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시절 중공 혈기(血旗)에 대한 선서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생각

하면 정말 가소롭습니다. 중공이 하루빨리 망하기를 바랍니다. 중공이 망해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상하이의 첸바이다(錢百搭)는 말했다. “문화대혁명과도 같은 극도로 야만적인 방역은 민가에 난입해 주인의 동의 없이 소독제를 분사하며 행패를 부리는데, 이것이 비적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약탈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러한 일이 중국의 금융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발생했는데,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각 지방정부는 중앙의 문책이 두려워 최종적으로 전국 민중이 피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중공 통치하의 민중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에 삼퇴를 성명합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캐나다 토론토 명혜 여름캠프가 개최됐다. 8주간, 50여 명 학생들은 매일 사람을 선하게 가르치는 《전법륜(转法轮)》 책을 공부하고, 파룬따파(法轮大法, 파룬궁) 다섯 가지 공법을 수련했다. 그 외에 중국 무용, 서예, 중국 회화, 스케치도 배웠다. 학생들은 이번 여름캠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학습 환경이 순정했다고 밝혔다. 위는 여름캠프 청소년반 학생들이 토론토 시청에서 열린 '진선인(眞·善·忍) 미술전'을 관람하고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봉쇄돌파 소프트웨어 받기

컴퓨터 버전: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gv88>

안내: 중국산 브라우저로는 위 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IE, Edge, Chrome 또는 파이어폭스 등의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